

여야, 입 조심 또 조심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돌발변수 경계 ‘살얼음판 선거전’
민주당 국난 극복 메시지·통합당 읍소 전략으로 지지호소

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여·야 각당은 ‘막말’이 최대 변수로 등장한 가운데 조심스러운 선거전을 펼쳤다. 선거 중반 이후 여야 정당·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어김없이 막말·말실수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서울 관악갑 김대호 전 후보의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경기 부천병 차명진 전 후보의 세월호 막말 등이 대표적으로, 통합당은 이들을 제명하는 초강수로

약재 차단에 나섰다.

통합당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대표는 대국민 사과로 고개를 숙였다. 나아가 이들 후보의 막말이 총선판 전체를 흔들자 ‘큰절 유세’와 ‘도와 달라’는 읍소 작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도 황교안 대표의 최근 ‘정부 데려’ 발언을 거론, “황당한 소리를 하는 이런 분에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

라고 공격했다. 동시에 역공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내부 단속에 나서고, 막말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인 언행에 대해선 차단막을 쳤다. 경기 안산 단원을 김남국 후보의 여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서울 강남병 김한규 후보 캠프 측 단체 대화방의 ‘2번 짝은 어르신 투표 않도록’ 발언 등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선거 막판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다. 민주당은 연일 ‘국난 극복을 위한 안정적 의석 확보’라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넘어서려면 민주당을 비롯한 현 여권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현 정권의 독주

전제’에 초점을 맞췄다. 김 위원장이 “저들은 경제를 망쳐도 찍고, 민주주의를 죽여도 찍는다”며 “이기는 방법은 그들보다 표가 많아야 한다”며 지지층의 표를 구했다.

나아가 지지층을 향해 ‘위기감’ 자극하는 전략도 구사했다. 민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한 원내 1당’이라는 목표치를 연일 제시하면서 “아직 2% 부족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최근 ‘범여권 180석’을 전망한 데 대해서도 “과실은 금물이며 교만은 독이자 패망의 지름길”(이인영 원내대표)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선 상태다.

/연합뉴스



투표소 설치 분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운암동 제3투표소인 광주시 북구 경양초등학교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출구조사 발표는 오후 6시 15분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 감안...사전투표율 높아 정확도 떨어질수도

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진행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발표가 15일 오후 6시 정각에서 15분 늦춰진다. 높은 사전투표율 탓에 방송사 출구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상파 3사(KBS·MBC·SBS)와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를 구성하고 있는 방송협회는 14일 “출구조사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 투표 시간을 감안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에 방송 3사를 통해 공표된다”고 밝혔다.

14일 방송협회에 따르면 협회와 지상파 3사(KBS·MBC·SBS)가 구성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선거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230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자 약 60만명을 대상으

로 출구조사를 진행한다.

한국리서치, 코리아리서치, 입소스주식회사 3개 조사기관 조사원 약 1만3000명은 투표소 밖에서 50m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 5명마다 1명씩을 대상으로 어떤 후보에게 투표했는지를 조사한다.

관건은 26.6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2016년 제20대 총선의 사전투표율(12.19%)보다 14.50%포인트 높다.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일에는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1174만여명은 출구조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출구조사 정확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론조사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지역구 16일 오전 2시·비례는 8시 윤곽

여야, 총선 개표 결과 시점 예측...비례, 수개표로 늦어져

여야 정당들의 4·15 총선 지역구 성적표가 투표일 다음 날인 16일 오전 2시께, 비례대표 의석은 오전 8시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6시 전국 1만4천330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 2만7천700개를 전국 251개 개표소로 옮겨 개표를 시작한다.

각 지역구의 첫 투표함 개표 결과는 오후 8시께 공개되기 시작한다. 지역구 당선인 윤곽은 개표가 70~80%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날 오전 2시께부터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이후에도 개표가 진행되는 만큼 접전지의 경우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다.

실제 2016년 4월 13일 실시한 20대 총선 당시 인천 부평갑에서는 14일 오전 5시

만 해도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35표 차로 앞섰지만, 거의 마지막 투표함이 열린 오후 6시께 26표 차이로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당선됐다.

선관위는 이번 총선 지역구 개표가 16일 오전 4시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정당투표의 경우 더 늦어져 일러야 16일 오전 8시께 개표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는 무려 35개 정당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바람에 정당 투표용지 길이(48.1cm)가 투표지 분류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길이인 34.9cm를 초과해 일일이 손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례대표는 개표가 끝나는 대로 의석수를 산정해 배분하며 이후 16일 오후 5시 예정된 중앙선관위 위원회의에서 당선인을 확정한다.

/연합뉴스

총선 라운지

김원이 “文 정부 수호·촛불혁명 완수 기회 달라”

목포시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14일 “꼭 투표에 참여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촛불혁명을 완수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 후보는 “목포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긴 침체를 벗어나 새로운 목포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이를 실현할 기치와 실력을 갖춘 새인물 기호1번 김원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결집해 대세는 기운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강한 정부, 강한 여당을 만들어준다”면서 “그 힘으로 일자리 창출, 의대 및 대학병원 유치, 목포역 지하화와 원도심 대개조 등 새로운 목포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박지원 “일자리·교육 1번지 목표 만들 것”

목포시 후보

민생당 박지원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는 14일 “정치 1번지 목표를 경제 1번지 목표로 만들려면 첫째도 인물, 둘째도 인물, 셋째도 인물”이라고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날 목포시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에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청년들이 좋은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받고,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고 사업하는 목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박 후보는 “박지원의 12년,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평가해 주신다. 그러나 당이 다르다고, 나이가 많다고 주저하시는 분도 있다”며 “그렇다고 아무나 찍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지원을 찍으면 박지원이 된다. 목포의 자존심이 회복되고, 목포의 대대가 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이낙연 대권이 열린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힘 있는 여당 의원이 지역 현안 해결”

나주·화순 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후보는 14일 “어려운 때 문제인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킨 신정훈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신 후보는 “차분하고 조용한 선거운동을 일관되게 펼친 것은 오로지 국민의 삶과 건강이 유세보다 중요하다는 소신 때문이었다”며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중자애의 마음으로 바다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누비는 선거유세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 2022년 개교와 방사광가속기 사업 유치 등의 현안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며 “이왕 일을 시키려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안주용 “나주·화순 바깥 소중한 한표 행사를”

나주·화순 후보

민중당 안주용 나주·화순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13일 나주목 사고을시장을 방문해 “나주화순을 바깥 소중한 한 표를 적극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하는 선거가 아니라, 나주화순을 바꾸느냐 바꾸지 못하느냐를 좌우하는 선거”라며 “그 동안 나주화순 발전에 발목을 잡아



온 패거리 정치, 줄 세우기 정치, 출세 정치, 반직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나주 화순의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결집하고 있다”며 “이제 내일이다. 여러분이 주시는 한 표는 저 안주용이 아니라 나주시민 화순군민의 위대한 승리를 만드는 한 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 · 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 · 임대 · 급매 전문/ 경 · 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